



특별기획 II 한국 대학의 경쟁력, 진단과 처방

타임(The Times)紙의 대학 순위를 보다!

- 아시아 대학의 약진(躍進) -

우마코시 | 일본 오비린대학교 교수

I. 첫 머리에

대학 랭킹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타임즈(The TIMES)지에서 주관하는 순위가 매년 노벨상 발표의 전후에 발간되기 때문에, 대중들이 바라보는 주목의 정도는 무엇보다도 한층 높다. 2006년도의 순위는 통합 랭킹과 함께, 노벨상과 유사한 학문 분야별(이학, 공학, 의학·생리학, 사회과학, 인문학)에 상위 100위권 대학의 순위가 발표되었다. 평가 방법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방식으로, Peer Review의 비율을 높여 세계 각 분야별 석학 3,708명에 의한 평가(40%), 논문 인용 수(20%), 교원 일인당 학생 수(20%), 국제기업·대기업 임용 담당자의 평가(10%), 교원 내에서의 외국인 교수 비율(5%), 학생 내에서의 유학생 비율(5%)의 합계로 산출된 방식이다.

II. 종합평가 랭킹에 의한 아시아 대학의 위치

지금까지 통합 랭킹으로서의 세계 최고 수준의 10대 대학은, 연도마다 순위의 변화는 다소 있었지만 미국과 영국의 대학들이 독점해 왔다. 그 중에서도 미국 동부의 하버드대, MIT, 프린스턴대, 서부의 스탠포드대, UC버클리, 캘리포니아 공대, 영국의 옥스포드, 케임브릿지 대학교는 10대 순위의 단골손님이었다. 2006년도에도 그 순위는 변함없이, 톱10의 순위에는 미국의 대학 7개교, 영국의 대학 3개교가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의 대학에 대해서 언급해 본다면, 상위권에 등재되어 있는 대학으로서, 북경대학(14위), 동경대학(19위), 싱가포르대학(19위)이 등장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들 3개교를 제외한 아시아의 대학으로부터 상위 100위권 대학에 들어가 있는 10개교를 나라(지역) 별로 살펴본다면, 홍콩(홍콩대학 33위, 중문대학 50위, 홍콩과학기술대학 58위)의 3개 대학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어서, 인도(인도공과대학 57위, 인도경영대학 68위), 일본(교토대학 29위, 오사카대학 70위),



중국(칭화대학 28위), 싱가포르(남양공업대학 61위), 한국(서울대학 63위)의 대학이 상위 100위권 내에 들어가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은, 중국의 칭화대학(62위→28위), 서울대학(93→63위), 오사카대학(105위→70위)의 순위가 각각 상승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아시아권의 대학들은 세계 학술권의 '변방'에 위치한 채 경시되어 왔지만, 최근 그 약진은 괄목할 만 하여, 위의 서술된 내용과 같이 통합 랭킹의 상위 100위권에 13개교가 이름을 올리고, 101~200위권 내에도 23개교(일본 8개교, 중국 4개교, 이스라엘 3개교, 한국 2개교, 말레이시아 2개교, 타이완 1개교, 인도 1개교, 홍콩 1개교, 대만 1개교)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한 경향이 계속된다면, 장래 아시아권의 대학은 세계 '대학지도(大學地圖)'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

III. 학문 분야별 평가로써 보는 아시아 대학의 약진

그 증거로, 2006년도판 학문 분야별 평가에서는, 각 분야의 톱 10위에 아시아 대학이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학 분야에 동경대학(10위), 공학 분야에는 인도공과대학(3위), 동경대학(7위), 싱가포르대학(8위)의 3개교, 의학·생리학 분야에서도 북경대학(8위), 싱가포르대학(9위), 사회과학 분야에서 아쉽게도 싱가포르대학이 11위에 그치고 말았지만, 인문학에서 북경대학이 10위에 이름을 올려, 아시아 대학의 약진의 모습이 한층 돋보여 눈길을 끌었다. 타임지에 해설 기사를 집필한 마틴 인스 기사는 "이학 분야에서 아시아 대학의 24개교가 상위 100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이것에 오스트레일리아, 이스라엘의 대학을 더한다면, 영국과 미국의 대학이 당연히 더 월등하다는 생각을 이제는 할 수가 없다.", "공학 분야

에서 인도공과대학의 비약적 발전이 보여주듯이, 영미 이외 지역의 대학은 상대하기 힘든 경쟁자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서술, 아시아 대학의 약진을 영미 그리고 유럽 지역의 대학에 대한 '위협'이라고 경종을 울린 것이다.

게다가 앞의 마틴 기사는 "의학·생리학 분야에 도상국의 가자마다대학 73위(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마라야대학(56위), 말레이시아공과대학(95위) 및 인도공과대학(70위), 자후하라루네루대학(99위)이 신규로 등장한 것은, 연구에 다각적인 자금을 투자하는 영미 모델이 반드시 대학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코멘트를 언급하였다. 또한 인문학 분야에 있어서도 '언어의 벽'을 뛰어넘어 아시아의 14개의 대학이 상위 100위권에 드는 것과 관련하여, "이후 아시아의 대학은 연구성과를 영어로 발간하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수의 대학이 톱100위에 이름을 올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유럽 대륙의 대학은 이러한 경향에 당혹스러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유럽 대학의 초초한 감정을 언급하고 있다.

타임지의 순위 해설 기사에 지금까지 아시아 대학이 채택된 일은 없었던 경우이지만, 다음 <표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분야별·지역별 대학 수를 본다면, 아시아 대학의 약진을 일맥상통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학과 의학·생리학 등의 기초과학의 분야에서 25% 전후를 아시아 대학이 차지하고 있고, 응용과학 분야의 공학(25%)은 물론, 사회과학(22%)과 인문학(14%) 분야에서도, 아시아 대학의 약진의 모습은 눈에 띈다.

이것에 태평양국가(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포함시킨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유럽과 북미에 필적하는 거대한 학술권(Center of learning)의 하나를 이미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상위 100대 대학의 분야별 & 지역별 분포(2006)

(숫자는 대학 수=비율)

분야 \ 지역	이학	공학	의학/생리학	사회과학	인문학
유럽	38	30	38	37	43
북미(미국/캐나다)	31	34	28	28	26
아시아 **	24	25	23	22	14
오스트레일리아 *	8	11	11	13	17
합계	101 (2개교가 100위)	100	100	100	100

The Times Higher Education(Oct.13, 20, 27, 2006)로부터 필자가 작성

** 표시는 이스라엘 포함

* 표시는 뉴질랜드 포함

Ⅳ. 약진의 원동력으로써의 대학의 구조개혁

이전까지의 고등교육연구 통설에 의하면, 개발도상국의 대학들은 인프라의 구 상태나 학술지(아카데미, 저널)에 사용된 언어(주로 영어) 등의 문제로 인해, 선진국들의 대학 등과 점차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타임지의 순위로 본 이상, 이전까지의 '상식'이라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냉전 종결 후의 글로벌화가 학문 분야에 있어서도 특정 지역 간의 종속관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시공간을 넘어 '경쟁'을 격화시켰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990년대 후반의 아시아 통화위기는, 아시아 각국에 글로벌한 경쟁에 대응을 강요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이전부터 동남아시아의 대학들은 '기업화(싱가포르)', '민영화(말레이시아)', '자치대학화(타이, 인도네시아)' 등, 각양각색의 슬로건을 내걸어 대학의 구조개혁(통치 개혁)을 받아들여 왔다.

또한 중국의 대학은, 건국 후 최대 규모의 대학 통폐합 재편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졌다. 특히 21세기 초두에 세계 수준의 대학 100개교를 만들기 시작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해 나아가고 있다. '211 공정(1996~2000)'과 그 안의 중점대학 10개교를 세계의 초일류 대학으로 하자고 계획하고 있는 '985 계획(1999~2000)'은 확실히 진전되고 있다. 또 한국도 경쟁력 강화를 향해 대단한 '두뇌한국 21세기 계획(BK21 사업)'의 제1기(1995~2005)를 성공리에 마치고, 제2기(2006~) BK21 사업을 시작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중점시책이 자금의 집중과 연구자의 체계적인 유통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것이 한국과 중국의 대학 순위 상승과 이어지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Ⅴ. 주춤하는 일본의 대학

마지막으로 필자는 일본인 연구자로서, 일본 대학이 세계 및 아시아에 있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해, 약간의 고찰을 해 두고 싶다.



타임지의 랭킹으로 보는 한, 도쿄대학 및 교토대학은 모든 학문 분야에서 톱100 대학에 들어가 있어 대부분의 영역에서 20위 이상의 높은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그 이외의 대학도 이학, 공학, 의학·생리학의 세 분야에 오사카대학과 동북대학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 이학, 공학의 두 분야에 동경공업대학과 나고야대학이 랭크되어 있다. 이들 대학의 상당수는 노벨상 수상자를 내고 있는 전통있는 대학이며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의 축적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번 회의 경우 사회과학 분야에 게이오대학(75위)과 고베대학(88위), 인문학에 와세다대학(58위)이 상위 100위 안에 이름을 올린 일이 눈에 띈다.

아시아 지역에 있어 일본 대학의 위치에 대해 본다면, 학문 분야별로 보는 상위 100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일본의 대학 수는 아시아 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조금 그 수가 많지만, 최근 상위 100위에 랭크되는 아시아 대학이

급증하고 있는 와중에, 일본의 대학 수는 최근 수년간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아시아에 있어 일본 대학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확실히, 국립대학은 2004년부터 법인화되어 국제경쟁력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21세기 COE(Center of Excellence) 프로그램 : 2002~2006'은 제1기를 끝내고, 각 학문 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일정의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지만, 그 사업 규모(금액) 및, 사업 내용에 대해서, 중국이나 한국의 프로젝트와 비교해 보면, 다소 열등하다.

특히 문제인 것은 공재정 지출에서 차지하는 고등교육 재정 지출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적인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는 대학 간 경쟁을 계속 승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199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대학개혁사업 본연의 자세를 발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